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4. 7. / (총 10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이 선 영 조 영 대	전 화	044-202-3575 044-202-3805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전 화	044-200-2293 044-200-2295
교육부 원격교육준비점검팀	과 장 담 당 자	정 원 숙 이 진 구	전 화	044-203-7190 044-203-719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최 하 영 박 종 필	전 화	044-203-6345 044-203-696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과 장 담 당 자	엄 열 김 단 호	전 화	044-202-6620 044-202-66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이 상 민 신 재 성	전 화	044-202-4930 044-202-4933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	과 장 담 당 자	권 도 현 이 희 룡	전 화	044-203-2321 044-203-232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김 용 재 조 성 훈	전 화	043-719-2051 044-719-205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온라인 개학 준비 상황, ▲학원 방역 관리 강화 방안,
▲집단 감염 위험 시설 점검 강화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온라인 개학 준비 상황, ▲학원 방역 관리 강화 방안, ▲집단 감염 위험 시설 점검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온라인 개학은 새로운 도전이라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이상 아이들을 집에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며 책임 의식을 갖고 도전에 임해줄 것과,

- 긍정적인 생각으로 정성과 열정을 다한다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는 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 이상의 상황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온라인 개학 준비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학습 공백 최소화과 학사 운영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단계별 온라인 개학을 실시할 예정으로, 원격수업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 (온라인 개학 일정) 중3·고3 (4.9), 고1·2, 중1·2, 초4~6(4.16), 초1~3(4.20)

스마트 기기 대여 및 인터넷 지원

- (스마트기기) 정보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33만2000대의 스마트기기를 확보하여 온라인 개학 일정에 맞추어 대여할 계획이다.
- 다만, 시도 간, 단위학교 간 보유 격차가 존재할 수 있어 학교가 우선 기기를 구매 또는 렌탈하면 예산을 나중에 지원하는 방법부터, 서대문구청, 수원시청의 기기 기증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인터넷 지원) 원격교육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EBS 등*)에 데이터 무료제공(~5.31)을 지원하며, 교육급여 대상자에게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

* EBS,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사이언스올, 엔트리, 커리어넷

정보화 환경 및 플랫폼 · 콘텐츠

- ☐ 전국 모든 교실에서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상용사이트 접근을 허용하였으며, 원격수업에 필요한 무선 인터넷 접속 공유기 및 기자재(웹캠, 핀마이크 등)를 지원한다.
 - ☐ 원격수업을 위한 플랫폼과 콘텐츠는 공공과 민간자원을 함께 활용할 계획으로,
 - 공공 플랫폼인 e학습터 및 EBS 온라인클래스는 학생 3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네이버 라인웍스, 구글 클래스와 같은 다양한 민간 플랫폼 활용도 지원한다.
 - 공공 콘텐츠는 이미 약 9만 종을 확보하였으며, 다양한 민간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협력해 나간다.
- * EBS 4.3만 종, 디지털교과서 134종, e학습터 5.5천 종, 국·검정교과서 e-book(469종), 에듀넷 약 4만 종 등

[초등 저학년 · 맞벌이] 가정 자녀 지원

- ☐ 초등 저학년(1~2학년)은 스마트기기 없이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EBS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학습지 등으로 구성된 학습꾸러미를 제공하는 등 학생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 ☐ 맞벌이 가정 등 긴급돌봄 참여 학생에게는 학교 컴퓨터실을 활용하여 원격수업과 돌봄을 함께 제공한다.

[고3 · 직업계고] 특성별 맞춤형 지원

- ☐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진로 · 진학 및 수능 준비를 위하여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 교사를 통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 ☐ 직업계고 학생은 기간집중이수제를 활용하여 온라인 개학 기간에는
전공 교과와 이론 수업을 실시하고, 등교수업 이후에는 실습수업을
집중 실시한다.

[현장 지원] 온라인 개학 후 현장 지원

- ☐ 온라인 개학 후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소통 채널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 * 1만 커뮤니티를 통한 애로사항 수렴 및 우수사례 확산, 교육부 누리집
원격교육 질의 · 응답 게시판 운영, 교육부 · 시도교육청별 도움센터 운영
- ☐ 또한, 정부는 원격수업 시행에 따른 국민 불안감 최소화를 위하여
주기적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학원 방역 관리 강화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학원·교습소(학원 등)에 지속적으로 휴원을 권고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교육부·교육청이 함께 이미 전국 학원·교습소(전체 126,872개) 중 57.8%(73,340개)에 대해 실시한 합동 방역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가족 중에 해외 귀국자가 있는 학생·강사도 2주간 학원 등원·출근 중지(3.30~), 시·도 교육청별 방역 위반 신고센터 설치·운영(4.3~)하도록 하여 학원 등의 방역을 한층 강화하였다.
- 학원이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방역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명령에 따른 영업정지 및 2차 감염자 발생 시 손해 배상 청구 등 엄정한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 더불어, 서울시 도봉구의 학원 휴업 지원금(100만 원) 지급, 인천시 교육청의 학원 대상 발열 체크기 보급, 전주시의 학원 강사 일자리 특별 지원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학원을 통한 감염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까지 2주간 연장되면서 비대면 종교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으나,
- 일부 중소 종교단체에서 비대면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4월 8일부터 5월 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하고, 4월 3일부터 한시적으로 소출력 무선국을 통한 승차 종교활동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 정부는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으로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 등을 지원한다.
- △카카오TV, 네이버밴드 라이브 등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 이용 매뉴얼을 제작·배포·안내하고,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1회선에 대해 5월 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편, △LTE, Wi-Fi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G 실내(인빌딩) 망 구축을 요청할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지원한다.

승차 종교활동 지원

- 비대면 종교활동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의 하나로 한시적으로 승차 종교활동을 위한 소출력 무선국이 허용된다.
- 정부는 특정지역에서 혼잡성 없이 활용 가능한 적정 출력 및 주파수를 도출하는 한편, 승차 종교활동에 부합하는 허가기준(주파수, 출력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4 집단 감염 위험 시설(클럽 등) 점검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층 강화하여 추진한다.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난 2주 동안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시설 30,38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 방역 지침을 위반한 7,315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고, 43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실시하였다.
- 이번 주부터는 기존 위생 공무원 위주의 점검에서 경찰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강화하고,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등 춤추는 클럽에 대해서는 금요일, 토요일 등 주말을 중심으로 성업시간(23~04시)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6.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9. 마스크 착용법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1.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제임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장 의료진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의료진 관련 >

1000

2020년 04월 01일 수요일 030면 사설/칼럼

‘코로나 영웅’ 의료진을 이토록 홀대해도 되는가

정부의 감염병 유입 차단 실패와 종교 집단 대규모 감염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된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시민, 세계 최고 수준의 위생과 의료진 덕분이다. 특히 가장 위험 속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 의사-간호사의 헌신적 노력이 수많은 목숨을 구했다.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1.7%로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다.

오펜을 거듭한 정부가 그나마 사태를 진정시킨 의료진에 큰절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들의 야망을 무너뜨리는 일을 연거푸 하고 있다. “방역 모범국” 운운하며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을 하는 데 정신이 팔려 나라를 구한 이들에게 고마움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정부는 가엾기 짝이 없다.

최근의 수당 논란은 의료진에 허탈함을 안겼다. 정부부처 임시 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들은 위험수당을 제공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확진자를 대면하는 의료진과 달리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많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임시 선별진료소에서도 의심 증상이 있는 방문자의 목과 코에서 검체를 채취해 보라.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자, 정부의 무성의한 행정이 집단의 의료진과 노사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박능후 부총리차주 장원은 마스크,보호복 등 보호복을 입고 도착했다. 의료기관의 호소에 “왕자요”고 쓰러고 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 다음엔 왕자의 사는 보호복이 없어 대신 손을 가운을 입고 갔다. 정부는 보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패렴으로 숨진 71~82살에가게 19~99살당만있어 한 차례 더 바뀔 건강시 제를 다시확인해 철저히 한인 것 있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꼭박박 들이서야 되겠는가. 대명사인왕자는 “나”를 말하고 오히려가 사 것이 대명사야 되며 권위하러 드는 모습인 일제만 일명왕들에게 누를 씌운 무능한 조선 관리들 연상할정도가 지극했다.

유럽 상황에서 보듯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무너지면 속수무책이다. 이미 120여 명이 감염됐지만 폭풍처럼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에 경의를 표하고도 부족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전현·안상에 격려된 고인들이 받았던 ‘청와대 도시락’과 질병관리본부에 건 ‘청와대 밥차’가 의료전에 달도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먼저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보도 발생(중앙일보 4.1)


1)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 → 사실 아님

- ☞ 모든 민간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됨
☞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 '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 명시

2) "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가운을 착용" → 사실 아님

-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없음
-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음

3)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 → 사실 아님

-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4) "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자 병원 검사실 폐쇄 지시"
→ 사실 아님

- ▶ 영남대학교병원이 실시 검사 결과, **지속적 음성 판정** 이후 **마지막 실시 검사결과 '미결정'**
- ▶ 해당 병원 **검사실 폐쇄**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지원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요청**
- ▶ 이후 **일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후 진단검사 재개

<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관련 >

안국경제

이학영 칼럼



상임논설고문

“한국 가면 검사·치료 다 공짜”
외국인들에게 ‘코로나 봉’
국민은 ‘해외출입 간헐자택’ 비상

표 10-9. 임의, 임의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TABLE IV

‘글로벌 호구’ 방역외교, 더는 안 된다

알라기도 힘들고 의외로도 지웠다.” 백련
은 이 사실을 “다른 나라에는 이렇지 않을
확고한” 상호주의에 일감에 급지해 한
다. 외국인이 지갑보통의 일부의 귀환
들어오라고 한다”는 말도 있다. 외교의
또 다른 기본인 상호주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을 정부 기와 민간인
의사 앞에서 듣게 된 것, 이게 한국 외교
의 현상이다.

[illegible]

한 미국에 대해서까지 일찌저찌 조처를 하기로한 이유다.

실활이 어떤데도 한국 정부만 일국제 한 조처에 등을 돌리고 있다. '갑열원 차 단' 일국가 및발차차 동원한 조치가 '모 든 해외 유망자 2주간 의무격리'에 결전

어는 영국인과 독일인이 합작 판권을 받 은 상태에서 곳곳을 활발한 정도로 외국 연 관에서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 을 위한 외교, 누구를 위한 정부연차 관계 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newsfromusa.com

Full text of this document is available at <http://www.ingenta.com>

▲ **외국인에게 검진·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내용의 보도 발생
 (한국경제, 4.1)

- ▶ 감염병에 대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 이는 국제보건규약(IHR) 제40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붙임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 (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페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붙임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